

# 彰忠祠의 건립과 居昌 愼氏 吏族

李 勛 相

1. 머리말
2. 彰忠祠의 건립과 居昌 愼氏 吏族의 동향
3. 居昌 愼氏 吏族의 家系 구성과 그 특질
  - a. 居昌 愼氏 吏族의 家系 구성
  - ㄱ. 彰忠祠에 祭享된 다섯 鄉吏의 家系
4. 居昌 愼氏 吏族 내 家系 分化의 사회적 배경과 의의
5. 맺음말
- ㄴ. 彰忠祠의 건립과 직접 관련이 없는 家系
- b. 居昌 愼氏 吏族 내 주도적 家系와 그 특성

## 1. 머리말

조선후기, 특히 17·18 세기에 걸쳐 각 지역 士族들에 의하여 書院이나 祠宇의 건립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이같은 書院이나 祠宇의 濫設은 조선후기의 큰 사회문제로까지 등장했다. 이것은 그들 대부분이 일정 지역의 유력한 가문이 주도가 되어 이들의 지위를 유지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심점으로서 건립·운영되어 왔기 때문이다.<sup>1)</sup>

이러한 경향은 鄉吏層에도 파급되어, 18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安東·尙州·醴泉·忠州 등지에 해당 지역 吏族들에 의하여 祠宇가 重創되거나

1) 이에 대하여는 다음의 글이 참고가 된다.

柳洪烈 「朝鮮 祠廟 發生에 대한 一考察」 (震檀學報 5, 1936)

鄭萬祚 「17~18 世紀의 書院·祠宇에 대한 試論」—특히 士林의 建立活動을 중심으로— (韓國史論 2, 1975.2)

朴珠 「朝鮮 肅宗朝의 祠宇濫設에 대한 考察」 (韓國史論 6, 1980.12)

신설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祠宇는 일정 지역 吏族들의 공동 노력으로 이루어진 경우도 있었지만 그 대부분은 특정 吏族 가문에서 독자적으로 건립한 것이었다.<sup>2)</sup> 따라서, 이들 祠宇는 건립과 운영에 있어서 특정 吏族 가문의 이해를 반영하는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居昌에 건립된 彰忠祠도 바로 그러한 일례라 할 수 있다. 이는 居昌의 행정실무를 담당하여 왔던 章氏·劉氏·愼氏 등 여러 吏族 가운데 居昌 愼氏 吏族 一門에서 건립한 것이었다. 그렇지만 그 건립과 운영은 愼氏 吏族 내의 일부 家系가 중심이 되었으며, 이것은 조선후기 吏族의 구조 및 그 특질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

조선후기의 鄉吏에 대하여는 최근 이들의 신분변화와 조직구조에 대한 일련의 연구가 발표되면서 이들 신분집단에 대한 우리들의 이해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sup>3)</sup> 그러므로, 이와 결부하여 愼氏 吏族 내부의 구조와 변화를 彰忠祠의 건립 경위를 통하여 해명함으로써, 조선후기 鄉吏層의 실체에 보다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愼氏 吏族 중에서 彰忠祠의 건립과 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인물과 그들의 家系를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愼氏 吏族 내 家系의 구성과 그 특질을 밝히려 한다. 이어서 愼氏 吏族 내부에서 진행된 변화를 살펴보고 이에 따라 수반된 家系 分化의 사회적 배경과 그의

2) 필자 「據曹龜鑑의 編纂과 刊行」(震檀學報 53·54 合併號, 1982.6) p.141. 참조.

3) 조선후기 鄉吏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李樹健 「朝鮮朝 鄉吏의 一研究」—戶長에 대하여—(文理大學報, 嶺南大 文理科 大學, 1974)

필자 앞의 글.

金弼東 「朝鮮後期 地方吏胥集團의 組織構造」(韓國學報 28·29, 1982)

崔承熙 「朝鮮後期 鄉吏身分移動與否考」(《金哲俊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 知識產業社, 1983)

—, 「朝鮮後期 鄉吏身分移動與否考 2」(韓國文化 4, 1983.12)

한편, 李基白의 「19世紀 韓國史學의 새 樣相」(《韓祐勳博士停年紀念史學論叢》, 1981)도 조선후기 鄉吏層의 동향과 의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의를 검토하게 될 것이다.

## 2. 彰忠祠의 건립과 居昌 愼氏 吏族의 동향

彰忠祠는 英祖 4년(1728)에 南人 鄭希亮 등이 安義에서 일으킨 戊申亂 때에 이亂을 진압하는데 功을 세웠던 愼氏 一門의 다섯 鄉吏를 祭享하기 위하여 세웠던 祠宇였다. 이 祠宇는 戊申亂이 일어난 지 50년 후인 正祖 2년(1778)에 건립되었으며 여기에 追享된 다섯 鄉吏는 다음과 같다.<sup>4)</sup>

[表 1] 彰忠祠에 追享된 다섯 鄉吏

贈	職	姓	名	職	役	生	存	年	代
佐	郎	愼	克 終	吏	房	1680	~	1728	
佐	郎	愼	錫 顯	戶	長	1680	~	1738	
佐	郎	愼	德 顯	戶	長	1690	~	1751	
參	判	愼	光 世	戶	長	1693	~	1772	
左	尹	愼	致 謹	戶	長	1682	~	1764	

그러나, 彰忠祠가 건립되기 49년 전인 英祖 5년(1729)에 이미 吏房 愼克終을 祭享하는 祠宇가 세워졌었다. 즉, 그들의 《家乘》에는<sup>5)</sup> 다음과 같은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愼克終은 (中略) 英祖 4년(戊申)에 凶逆의 난이 일어나자, 옷을 찢어서 깃발을 만들어 피로써 맹세하는 글을 썼다. 그리고 의병을 일으켜 그들을 지휘, 역적들을 섬멸했던 것이다. 그 이듬해인 英祖 5년(己酉)에 公論이 일제히 일어나, 같은 때에 절개를 지켜서 순사했던 李述原을 모시는 褒忠祠 곁에 愼克終을 모시는 祠宇를 세웠다.<sup>6)</sup>

4) 宋釋圭撰 <彰忠祠事蹟碑>

5) 여기에 인용한 家乘은 愼克終의 손자인 戶長 愼思齊가 正祖 24년(1800)에 편찬한 필사본으로서 그 題名이 《居昌 愼氏 桑林家譜》로 되어 있다. 이 乘乘은 현재 居昌에 거주하는 愼元粹氏가 소장하고 있다.

6) 諱克終 (中略) 當戊申凶逆之亂 裂裳爲旗 血書誓辭 倡率義兵 指揮殲賊 己酉 公論齊發 立祠於同時死節 李述原褒忠祠傍 《居昌 愼氏 桑林家譜》

이로 보아 英祖 5년에 이미 愼克終을 위한 祠宇가 戊申亂 때 함께 죽은 座首 李述原을 모시는 褒忠祠 곁에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祠宇는 李述原을 위한 褒忠祠에 부속된 別廟의 형식으로 건립되었음을 볼 수 있다.

愼克終은 (中略) 역적의 무리를 모두 잡았다. 그러나, 그는 忠憤에 격해져서 등에 종기가 나서 죽었다. 이에 士林들이 大司憲으로 追贈된 李述原을 모시는 褒忠祠 곁에 別廟를 세웠던 것이다.<sup>7)</sup>

이처럼 彰忠祠는 褒忠祠에 부속된 別廟로서 건립되었던 것이다. 또한, 이 기록에는 別廟를 士林들이 세운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愼克終의 후손이 이를 건립한 것으로 생각되며, 다만 표면적으로 士林을 내세워 그 작업을 진행해야만 했던 당대의 상황이 위의 기록에 반영된 것이라 믿어진다. 그러므로, 正祖 2년에 건립된 彰忠祠는

전날 正祖 2년(戊戌年)에 鄉인들이 縣祠의 곁에 五忠祠를 세우고 彰忠이라는 편액을 걸었다.<sup>8)</sup>

라는 기록에서 살필 수 있는 바와 같이, 愼克終 1人을 위한 別廟에서 愼錫顯·愼德顯·愼光世·愼致謹을 포함한 다섯 鄉吏를 함께 追享하는 祠宇로의 발전을 의미하며, 또한 褒忠祠로부터 縣司의 옆으로 이전함으로써 褒忠祠에 부속된 別廟에서 독립된 祠宇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彰忠祠가 官으로부터 享需가 賜給되는 祠宇로 승격한 것은 그로부터 10년 후인 正祖 12년(1788)에 이르러서였다. 즉, 戊申亂의 1周甲을 맞아 正祖는 다음과 같은 綸音을 발표했던 것이다.

7) 愼克終 (中略) 悉捕賊黨 忠憤所激 疽背而死 士林立別廟於贈大憲李公述原褒忠祠旁 (《據曹龜鑑續》1 觀感錄·39b)

8) 始在戊戌(1778) 鄉人建五忠祠于縣司之傍 扁以彰忠 (宋穉主撰〈彰忠祠事蹟碑〉)

居昌府의 鄉吏 愼克終도 李述原·愼溟翔과 같은 일을 함께 했었는데 얼마 후에 등에 종기가 나서 죽고 말았다. 그러므로, 받들어 褒錄에 올렸어야 했는데 이를 올리지 않았으니 어찌 잘못된 처사가 아니겠는가. 愼克終을 특별히 郎署에 追贈하도록 하라. (中略) 또한, 戊申亂 때 출정하여 중군했던 장군과 사졸 가운데 지금 까지 살아있는 사람과, 창의하여 순절한 사람 중에 빠져서 포상받지 못한 인물들을 각 도와 각 부가 찾아내어 알리도록 하라.<sup>9)</sup>

이렇게 正祖는 愼克終을 특별히 郎署로 追贈하였고 또한 戊申亂에 출정하여 살아있는 자나 창의하여 순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껏 포상받지 못한 인물들을 찾아낼 것을 명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경상도 감사 金光默이啓를 올리고 조정에서는 우의정 蔡濟恭을 비롯한 대신들의 獻議에 따라 愼錫顯·愼德顯·愼光世·愼致謹 네 鄉吏 등을 愼克終과 마찬가지로 郎署로 追贈하기에 이르렀다.<sup>10)</sup> 한편, 禮曹에서는 縣에서 이들의 享需를 지급하게 함으로써, 彰忠祠는 愼氏 一門의 祠宇에서 국가로부터 인정받는 중요한 祠宇가 되었던 것이다.<sup>11)</sup> 그 뒤 純祖 11년(1811) 이후에는 그 전까지 戶長이 주관하여 오던 儀禮를 士林들이 주관하게 됨으로써 그 중요성은 더하여졌다.<sup>12)</sup>

이같은 일련의 변화가 전개되어 온 이면에는 위의 다섯 功臣을 배출한 愼氏 一門의 노력이 깔려있었다. 예컨대, 愼克終의 아들인 愼守天(1729~1787)은 그러한 노력을 기울인 대표적인 인물로서 부각될 수 있다.

愼守天은 (中略) 佐郎 愼克終을 모시는 祠宇를 세울 때, 家藏을 다 기울여 스스로 재물을 마련하였고 몸소 토석을 다듬어 성의와 힘을 다하려 했다.<sup>13)</sup>

9) 府吏愼克終亦與述原溟翔 終始同事 尋因疽背而死 尙稽褒錄 豈非欠典 特贈郎署 (中略) 出征從軍將士之至今生存者·倡義殉身之泯未褒揚者 令各部各道 搜訪以聞 (《弘齋全書》27 褒錄戊申功臣忠臣輪音 戊申)

10) 蔡濟恭, 《樊巖先生文集》29 嶺南戊申軍功人區別施賞議

11) 因政府獻議 達于天聽 因春曹行關 官給享需 (宋釋圭撰, 〈彰忠祠事蹟碑〉)

12) 令戶長主之 純廟辛未 移建于府東龍涵山下 官給享需 士林管其儀 (郭鍾錫撰, 〈五忠碑〉)

13) 愼守天 (中略) 當佐郎公立祠時 蕩盡家藏 自辦物財 躬操土石 期盡誠力 (《居昌愼氏 桑林家譜》)

즉, 彰忠祠는 바로 慎守天이 재원을 마련하여 건립했던 것이며, 또한 그는 이를 京外에 널리 알려, 조정에게까지 慎克終의 행적이 전해지게 했고 그리하여 慎克終은 慎氏 一門의 다른 네 鄉吏에 앞서 特贈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와 더불어, 慎克終 의의 나머지 네 鄉吏까지 追贈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였던 慎敦恒(1743~1809)도 주목해 보아야 할 인물이다. 그는 慎錫顯의 嫡孫이며 동시에 慎德顯의 從孫이 되는 인물로서 그의 行錄에는 아래와 같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慎敦恒의 죽은 할아버지와 그 종형제는 戊申年에 亂을 막은 공이 있었으나 오랫동안 포상을 받지 못했다. 戊申亂의 一周甲을 맞게 되자, 慎敦恒은 경상도 내 士林의 公議에 힘입어 짐을 꾸려 상경하여 성의와 힘을 다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 행적이 임금에게 알려져 追贈의 은총을 받을 수 있었다.<sup>14)</sup>

다시 말해서 慎敦恒이 正祖의 綸音에 응하여 직접 상경, 힘껏 노력한 결과 네 鄉吏 역시 贈職이 제수될 수 있었던 것이다.<sup>15)</sup> 그뿐 아니라 慎敦恒은 同宗 士族인 持平 慎師稷에게 청하여 <五慎倡義傳>을 撰述하도록 하였고<sup>16)</sup> 이를 통하여 다섯 鄉吏들의 행적을 널리 알리려 했다.

또한 慎大哲(1747~?)도 그의 조부 慎致謹이 工曹佐郎에 贈職된 후에 그의 조부가 生前에 이미 老職을 제수받은 사실을 들면서 加贈하여 줄 것을 上言하였고 그 결과 慎致謹이 左尹으로 加贈될 수 있었다.<sup>17)</sup>

이와 더불어 戊申亂의 功臣 慎光世도 工曹佐郎으로 贈職된 후, 正祖 19년(1795)에 그의 둘째 아들인 慎彭壽(1727~1807)가 老職을 수여받음에 이

14) 祖考·從兄弟有戊申扞亂功績 未久褒揚 當回甲戌申 因道內士林公議 曳裝上京 極致誠力 竟得上徵 蒙贈恩 (《居昌 慎氏 世譜》4上—121 慎敦恒 行錄 1961)

15)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掾曹龜鑑續編》1 觀感錄·58b에 실린 慎敦恒의 전기에 부연되어 있다.

16) 錫顯之孫敦恒 以文學名一見可知其爲人也 請餘立傳 余固拙於文者也 其何敢特以 百代之誼 不能終辭 略叙五慎事蹟 以俟秉筆之君子云 (《後丁巳譜》後錄 桑林公派 64 <五慎倡義傳>)

17) 《後丁巳譜》11—53.

르려 推恩하여 參判으로 加贈받게 된다.<sup>18)</sup>

요컨대 彰忠祠의 건립으로부터 贈職 수여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은 이것이 愼氏 吏族 一門의 영예를 의미하는 것이었으나, 그 작업은 愼氏 吏族 공동의 노력에 의한 결실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다섯 功臣의 직계 자손이 힘을 쓴 결과였던 것이다.

한편 愼氏 吏族員 중에는 戊申亂에 功을 세우고도 이러한 褒錄의 대열에 끼지 못했던 두 인물이 있어서 우리의 주목을 끈다. 이들은 戶長 愼有信(1666~1726)의 아들인 愼世彬(1683~1733)과 愼世欽(1688~1732)으로서 《掾曹龜鑑續編》에 수록된 그들의 전기에는 다음과 같은 행적이 명기되어 있다.

愼世欽은 居昌의 戶長인 愼有信의 아들이며 壬辰亂의 功臣인 愼大安의 玄孫이다.

戊申年에 變亂이 일어나 현감이 도망가고 座首가 피살되자 감영에서 임시 현감을 차송하게 되었다. 이에 愼世欽은 자원하여 首吏가 되고, 그의 형인 愼世彬을 천거하여 義兵의 도지휘사로 삼았던 것이다. 그리고, 士人 尹商驍를 의병장으로 뽑고 進士 李瑞河와 尹世彥을 副將으로 삼아서, 印符를 가지고 임시 현감을 맞이 하였으며 이에 계략을 짜서 원근에 격문을 띄웠다. 마침내 禁衛軍 呂海達 등이 李熊輔와 鄭希亮을 사로잡았고, 巡撫使 吳命恒이 居昌縣에 머무르며 功을 조사하여 장계를 올리게 되자 愼世欽 형제는 겸손하게 공을 내세우지 않아서 군이 그들의 공훈이 籍에 오르는 것을 사양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鄉人들은 지금까지 이 사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sup>19)</sup>

이에 의하면, 愼世欽과 愼世彬 형제의 공훈은 앞에서 말한 다섯 鄉吏들에 못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褒賞의 대열에 오르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이들 형제는 그들의 현저한 행적으로 말미암아 傳記

18) 《掾曹龜鑑續編》1 觀感錄·41a 愼光世 傳記

19) 愼世欽 居昌戶長有信之子 壬亂功臣大安之玄孫也 戊申變 主倖逃 留鄉被殺 自營門差送假倖 世欽 自願爲首吏 薦其兄世彬 爲義兵都指揮使 以士人尹商驍差義兵將 進士李瑞河·尹世彥爲副 抱持印符 迎駕假倖 指劃方略 移檄遠近 禁衛軍呂海達等 竟捕熊亮 巡撫使吳公命恒 駐節本縣 查功修啓 世彬兄弟 謙抑不伐 固辭勲籍 鄉人至今惜之 《掾曹龜鑑續編》1 觀感錄·41a 愼世欽 傳記

가 邑誌에까지 올랐으나<sup>20)</sup> 正祖 12년(1788)의 褒賞의 대열에 끼지 못했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널리 알려져서 가령 居昌의 府使로 부임하여 온 崔允鼎은 愼世欽과 愼世彬의 행록을 撰述하면서 戊申亂에서 가장 공훈이 뛰어났던 愼氏 吏族 一門 가운데 오직 다섯 鄉吏들만이 正祖 12년에 국가로부터 특별히 優典을 받아 贈職이 除授되고 祠宇에 祭享된 반면, 위의 두 인물은 여기에서 빠졌음을 안타깝게 지적했다.<sup>21)</sup>

한편, 이에 앞서 彰忠祠를 건립할 때 愼克終을 포함한 다섯 鄉吏들이 祭享의 대상으로 선정되고, 같은 愼氏 吏族員인 愼世欽과 愼世彬은 여기에서 제외되었던 것도 이와 상통하는 내용이라 믿어지며, 이러한 동향은 正祖 21년(1797)에 愼氏 吏族들이 주도가 되어 간행한 《後丁巳譜》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즉, 愼氏 世譜에는 공훈이나 덕행이 현저한 同宗의 전기를 수록한 ‘世德考’가 설정되어 있는데 《後丁巳譜》의 간행에 이르러 鄉吏派에게도 이 항목을 설정하였던 것이다.<sup>22)</sup> 그런데, 전

20) 《鐵林邑誌》人物條 英祖 36년(1760) 편찬.

21) 《居昌·愼氏 世譜》4上-62 崔允鼎撰 愼世彬·愼世欽 行錄

22) 居昌 愼氏 家門에서는 다음과 같이 族譜를 편찬하여 왔다.

居昌 愼氏 世譜의 일람표

族譜의 명칭	편찬 혹은 간행연대	편찬자 혹은 간행자	편찬 혹은 간행장소
戊申草譜	明宗 3년(1548)	愼居寬	漢 陽
壬戌譜	肅宗 8년(1692)	愼景尹	濟 州
丁巳譜	英宗 13년(1737)	愼後聃 및 諸宗人	安 義
後丁巳譜	正祖 21년(1797)	愼無興 및 諸宗人	全 義
辛亥譜	哲宗 2년(1851)	愼必著 및 諸宗人	黃山(安陰)
辛丑譜	光武 5년(1901)	愼炳滄 및 諸宗人	龜 山
丁丑譜	(1937)		

이 가운데 鄉吏派가 수록된 첫 族譜가 바로 《丁巳譜》이다. 그렇지만 《丁巳譜》에는 鄉吏派가 士族 諸派들과는 분리되어 別譜에 편입되어 있다. 그후 《後丁巳譜》의 간행에 즈음하여 鄉吏派가 士族 諸派와 함께 合譜로 정리되기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丁巳譜》에서는 士族에게만 설정되어 있던 ‘世德考’가 《後丁巳譜》에 이르러 鄉吏派에게까지 설정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같은 변화가 지니는 의미에 대하여는 또 다른 연구과제로서 기약하고자 한다.

기가 수록된 인물은 다음의 표와 같이 다섯 功臣을 포함하여 그들의 직계 선조나 후손에 집중되어 있었던 것이며, 이를 다시 정리하면 愼氏 吏族 내의 특정 家系에 국한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表 2〕 《後丁巳譜》 鄉吏派의 ‘世德考’에 傳記가 수록된 人物

所屬家系	世代	姓 名	職 役	生 存 年 代	行 蹟
源 派	21	弘 男	戶 長	1573~1620	壬亂 屬從功臣·孝行
	23	以 典	戶長·通政	1655~1731	孝 行
	24	克 終	吏房·贈佐郎	1880~1728	戊申亂 原從功臣
	25	由 誠	戶 長	1711~1756	孝 行
	25	守 天	戶 長	1705~1727	孝 行
得義派	23	聖 矩	戶 長	1650~1727	節 義
	24	錫 顯	戶長·贈佐郎	1680~1738	戊申亂 原從功臣
	25	祺 徵	將仕郎	1710~1741	孝親睦族
	25	休 徵	戶長 僉 正	1725~1787	鄉吏世界에서 비중이 큰 인물
	24	德 顯	戶長·贈佐郎	1690~1751	戊申亂 原從功臣
	25	龜 徵	承仕郎	1716~1762	鄉吏世界에서 비중이 큰 인물
	25	鶴 徵	部 將	1712~1785	友 愛
	26	克 恒	學 生	1740~1772	學 行
沃東派	25	致 謹	戶長·贈佐尹	1682~1764	戊申亂 原從功臣
	26	爾 重	折 衝	1701~1776	孝 行
義種派	25	光 世	戶長·贈參判	1693~1772	戊申亂 原從功臣
華國派	22	希 敏			孝 行

이상의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世德考’에는 孝行이 현저하여 《邑誌》나 鄭桐溪의 <年譜>에까지 그 전기가 수록된 愼希閱을 제외하면<sup>23)</sup> 다섯 功臣을 배출했던 家系의 인물들만이 실려있는 것이다. 이러한 선정작업이 단지 공훈이나 덕행에만 기준을 두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은 다음의 표를 살펴보더라도 분명해진다.

23) 《續林邑誌》人物條 및 《撮曹龜鑑》3 觀感錄·25b 愼希閱 傳記 참조.

[表 3] 軍功이 있거나 科擧에 합격한 鄉吏로서 '世德考'에 傳記가 수록되지 못한 人物

所屬家系	世代	姓名	職 役	生存年代	行 蹟
尤才派	22	士 秀	營吏에서 進士	1570~	1609년 司馬合格, 宣敎郎 光陽·順天·沃川訓導 역임. 壬亂의 軍功
	22	士 俊	吏	1552~	
孟東派	23	興 元	出身(武科합격)		壬亂의 軍功
	23	興 吉	" · 守門將		
季東派	21	大 英	戶 長	1561~1597	壬亂의 순절
	21	大 安	戶 長	1567~1597	壬亂 原從功臣
	23	化 龍	出 身	1627~1736	武科 합격자
	25	世 欽		1683~1733	戊申亂의 軍功
	25	世 彬		1688~1732	"
沃東派	23	得 瑞			武科, 壬亂의 軍功
	23	得 仁			"
宗國派	22	秘	進 士		

위의 인물들은 科擧에 합격하거나 軍功이 현저하여, 그들의 행적이 앞서 《後丁巳譜》의 '世德考'에 전기가 수록된 17인에 못지 않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이들의 家系는 '世德考'에 전기가 수록되었던 인물들의 출신 家系와는 구분되고 있어서, '世德考'의 수록 기준이 바로 해당 인물의 出身 家系와 긴밀하게 결부되어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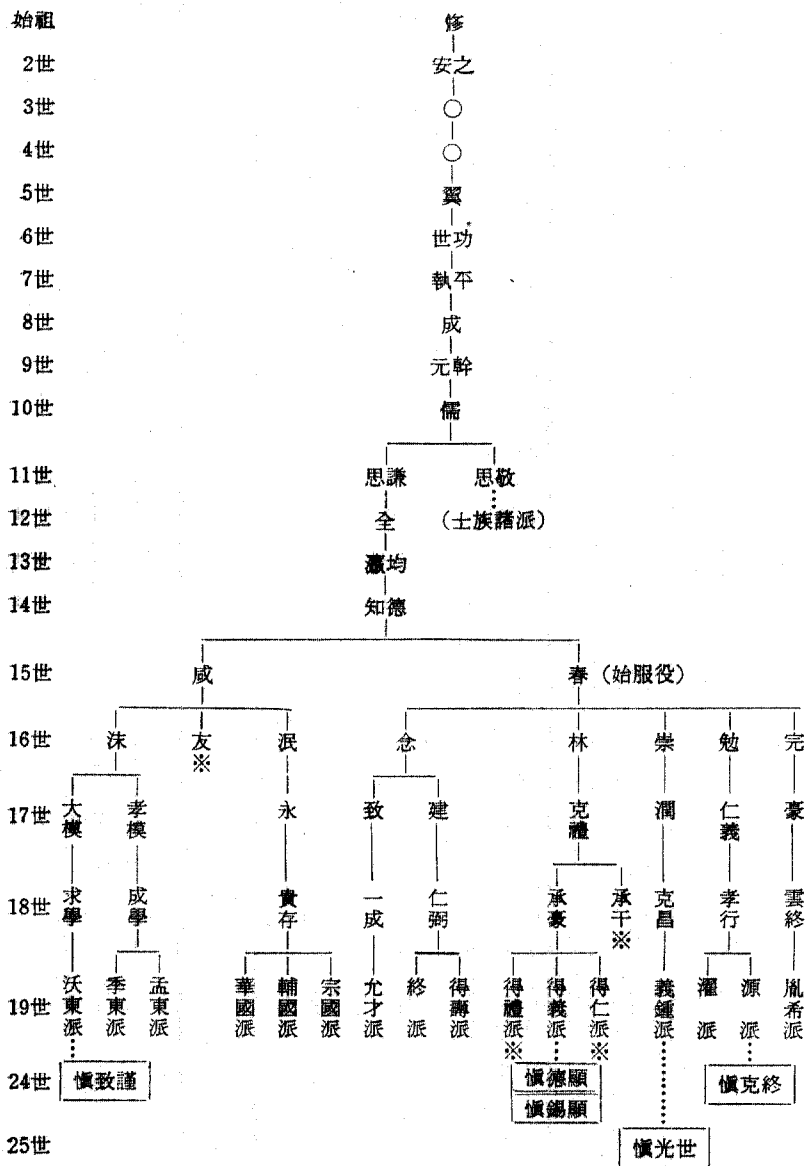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後丁巳譜》의 편찬자들이 이들 吏族들이 제출한 單子를 기준으로 구분해 놓은 13 家系를 표로 정리하고<sup>24)</sup> 관련내용을 摘記하면 다음 편의 [表 4]와 같이 된다.

다시 말해서 《後丁巳譜》를 편찬한 士族들은 吏族의 各 家系를 19代를 기준으로 구분·제시하여 놓았으며, 이는 彰忠祠에 祭享된 愼克終의 孫子 戶長 愼思齊(1739~?)가 그들 자신의 家系의 家乘에 분류하여 놓은 것과도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sup>25)</sup> 그러므로, 후손이 없이 끊긴 愼得仁과 愼得

24) 그 구체적인 분류 내용이 《後丁巳譜》12〈居住圖〉에 제시되어 있다.

25) 愼思齊가 편찬한 《居昌 愼氏 桑林家譜》에는 위에 정리된 13 家系 가운데 3家

【表 4】 《後丁巳譜》에 분류되어 있는 鄉吏派의 各家系 (\*는 無後派, □는 彰忠祠 追享人物을 지칭함)



禮의 두 家系와 家系の 명칭조차 수록되지 못했던 愼終의 家系를 제외한 13 家系 가운데, <sup>26)</sup> 彰忠祠에 追享되고 ‘世德考’에 傳記까지 수록할 수 있었던 家系는 불과 네 家系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正祖 2년에 다섯 鄉吏를 追享한 彰忠祠의 건립은 愼氏 吏族 내 특정 家系들이 중심이 되어 그들 家系의 현양을 위하여 전개했던 노력의 구체적인 한 표현이었던 것이다.

### 3. 居昌 愼氏 吏族의 家系 구성과 그 특징

#### a. 居昌 愼氏 吏族의 家系 구성

《後丁巳譜》에 모두 열 세 家系로 분류·정리된 愼氏 吏族(〔表 4〕를 참조)을, 彰忠祠에 그들 직계 선조를 祭享했던 네 家系와 나머지 아홉 家系로 분류하여 양 집단의 특징을 비교·개관함으로써 彰忠祠의 건립을 포함한 일련의 동향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각 家系를 行列의 공동 사용 범위, 入養 범위 및 無後 표시의 유무, 官階의 기재 및 그 내용, 族譜의 편찬에 대한 관심,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 등을 기준으로 그 특징을 정리하려 한다. 다만, 壬辰倭亂 이전의 인물에 대한 기록은 매우 소루하여, 앞에서 家系 구분의 기준이 되는 世代를 19代로 잡고 있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壬辰倭亂을 전후

를 또 다시 구분하여 놓고 있다. 그 구체적인 사항은 본고의 세번째 章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26) 愼終의 家系는 《後丁巳譜》에는 그 世系가 수록되어 있지만, 같은 族譜 내의 家系를 분류·정리한 〈居住圖〉에는 家系의 명칭조차 빠져있다. 더욱이 이미 그 이전의 《丁巳譜》에도 이 愼終의 家系는 빠져 있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後丁巳譜》의 편찬자들이 분류하여 정리한 것을 따라 이 세 家系를 제외한 13 家系만을 검토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하여 생존한 21代부터 위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sup>27)</sup>

#### 7. 彰忠祠에 祭享된 다섯 鄉吏의 家系

彰忠祠에 祭享된 다섯 鄉吏의 家系는 《後丁巳譜》에 그들 各家系員에 대한 관련 내용이 충실히 기재되어 있어서 族譜 편찬에 대한 이들의 높은 관심을 짐작할 수 있게 해 준다. 이 가운데, 우선 愼克終의 출신 家系인 源派부터 표로 정리하면 다음 면의 [表 5]와 같다.

이 표에 의하면, 源派가 《後丁巳譜》의 간행에 즈음하여 單子를 제출했던 18세기 말에 行列의 공동 사용 범위가 적어도 10寸 이상으로 확대되었음을 보여주며, 入養 범위도 6寸에까지 이르고 있다. 한편, 庶子에 대한 표시는 21代부터 나타나고 있는데 그 시기는 대개 壬辰倭亂 직후에 해당된다. 원래 英祖 13년(1737)에 《丁巳譜》를 간행할 때는 庶子 표시를 해놓지 않았던 것을 60년이 지나서 《後丁巳譜》를 간행할 때 이를 소급하여 표시해 놓았던 것이다. 官階를 지니고 있는 인물은 愼克終 외에도 세명이 더 보이며, 이들 네 명 모두가 24대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sup>28)</sup>

27) 壬辰倭亂 전에 생존한 인물들은 그 대부분의 世系가 單傳으로 내려오고 있거나 관련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8) 원래 鄉吏들은 戶長에서 물러난 후 관계에 의하여 國家로부터 正 5品 通德郎 이하의 品階를 수여받아 왔다. 이는 高宗 2년(1895)에 간행된 《六典條例》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每冬季月二十五日以後 考各邑陳省 給攝戶長·正朝戶長·安逸戶長帖 過此則將仕·從仕郎帖 次次成給 限通德而止(《六典條例》1 吏曹 鄉吏給帖)

즉, 鄉吏가 安逸戶長으로 退仕한 후 正 5品 通德郎의 官階까지 수여될 수 있도록 규정했던 것이다. 그렇지만 이 규정은 이에 앞서 이미 오래 전부터 시행되어 오던 관행이었다(《掾曹龜鑑》1 戶長疏 참조).

그러나, 《後丁巳譜》에 官階를 가진 것으로 기재된 鄉吏들이 모두 이 규정에 의거하여 官階를 수여받은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예컨대 愼克終을 포함한 다섯 功臣이 特贈되었다거나 老聯을 받은 사례도 나타나며, 나아가 通德郎 보다는 높은 官階를 지닌 인물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같은 취득과정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鄉吏로서 官階를 지닐 수 있었다는 사실은 분명 그 집안의 威勢나 후손의 得勢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各家系의 家勢를 평가하는 적절한 기준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各家系에서 官階를 지닌 인물을 정리하여 世대에 따라 그 칭호만을 일람표에 명기하였다.

〔表 5〕 源 派

世 代	各 世 代 구 성 인 원 범 위 와	行 列 의 공 동 사 용 범 위	入 養 범 위 및 無 後 표 시	庶 子 표 시	官 階 기 재	비 고
19	1名					《後丁巳譜》의 '世 德考'에는 21代愼弘男· 23代愼以典· 24代愼克終· 25代愼由誠· 25代愼守天의 건 기가 실려 있음.
20	2寸 5名	2寸	有			
21	4寸 5名	2寸 4寸	有	※ 有		
22	6寸 8名	2寸 4寸 6寸	有	※ 有		
23	8寸 11名	2寸 4寸 6寸	4寸			
24	10寸 15名	2寸 4寸 8寸		有	贈佐郎 判官 司果 折衝	
25	12寸 21名	2寸 4寸 6寸 12寸	4寸有	有		
26	14寸 23名	2寸 4寸 6寸 12寸	4寸	有		
27	14寸 24名	2寸 4寸 6寸 8寸	6寸	有		
28	16寸 2名					
29						

〈이 一覽表를 포함하여 各 家系의 一覽表는 《丁巳譜》 및 《後丁巳譜》에 의거하여 이를 작성했다. 관련 항목을 보충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各 世 代 구 성 인 원 은 《後丁巳譜》가 간행된 正祖 21년(1797) 이전을 대상으로 잡았고 庶孫·外孫·女孫은 여기에서 제외시켰다.
- 庶子 표 시 앞 에 ※를 기재한 것은 원래 《丁巳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것을 《後丁巳譜》에서 이를 소급·표시한 것을 지칭한다.
- 비 고 항목 가운데 기재 내용이 불완전 하다는 것은, 조선 후기 族譜에 수록된 本孫의 경우, 관계에 따라 이름 외에 밝혀져야 할 관련기사가 여기에서는 대부분 빠져있는 경우를 뜻하는 것이다.

한편 愼錫顯과 愼德顯을 배출했던 得義派는 家系의 結속에 있어서 源派를 능가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表 6] 得 義 派

세대	各 世代 구 성 원 인 원 범 위 와	行列의 공동 사 용 범위	入 養 범 위 및 無 後 표시	庶子 표시	官 階 기 재	비 고
19	1名					○《後丁巳譜》의 '世德考'에는
20	1名					
21	1名					23代 慎聖矩
22	2寸 3名	2寸	有	有	通 政	24代 慎錫顯
23	4寸 5名	4寸	4寸 有		通 政	24代 慎德顯
24	6寸 7名	6寸		有	贈佐郎·判官· 贈佐郎	25代 慎猗徵
25	8寸 13名	8寸		有	仕郎·僉正·承仕 郎·部將·部將	25代 慎休徵
26	10寸 28名	10寸	4寸	有	部將·僉正	25代 慎龜徵
27	12寸 42名	12寸	6寸 有	有		25代 慎鶴徵
28	14寸 7名	14寸				26代 慎克恒의 전기가 실려 있음.
29						

위의 표에도 정리되어 있듯이 22代 이후 家系의 모든 구성원이 同一 行列을 취하고 있는 得義派는 官階를 지니고 있는 家系員 또한 12명이나 찾아볼 수 있어서 다른 家系들과는 뚜렷하게 구분되고 있다. 이에 덧붙여, 入養 범위가 6寸까지 확대되었고 庶子의 표시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는 사실은 得義派의 家勢와 결속이 다른 家系에 비하여 훨씬 두드러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이러한 得義派의 위치는 《後丁巳譜》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世德考'에 수록된 鄉吏들의 傳記 가운데 반에 해당하는 여덟 명을 접하고 있는 것이다. ([表 2] 참조)

다음으로 源派나 得義派에 비하여 家系의 규모가 다소 떨어지는 家系로서 바로 慎光世를 배출한 義鍾派를 들 수 있다. (다음 편의 [表 7]을 참조) 義鍾派는 行列의 공동 사용 범위가 18세기 말인 28代에 이르러 8寸까지 확대되었고, 이는 家系 구성 범위와 일치한다. 이와 더불어 庶子의 표시가 적지 않게 나타나고 官階를 지닌 인물도 일곱 명이 보이고 있다. 다만, 《後丁巳譜》의 '世德考'에는 慎光世 1인의 전기만이 수록되어 있어

[表 7] 義鍾派

世代	各世代 구성 인원	行列의 공동 사용범위	入義범위 및 無後표시	庶子표시	官階기재	비 고
19	1名					○《後丁巳譜》의 ‘世德考’에는 25代 愼光世의 전기만이 실려 있다.
20	1名					
21	2寸 2名	2寸			通 政	
22	4寸 2名		有		贈掌樂正	
23	2寸 6名	2寸			贈工曹參議	
24	4寸 6名	4寸	有	有		
25	6寸 4名	2寸		有	贈參判·護軍	
26	4寸 9名	4寸		有	僉樞·同樞	
27	6寸 12名	6寸		有		
28	8寸 14名	2寸 8寸				
29	2名					

이들의 家勢를 짐작할 수 있다.

끝으로 살피려는 沃東派는 愼致謹을 배출했던 家系로서, 義鍾派와 마찬가지로 源派나 得義派에 비하여 열세한 위치에 있다.

[表 8] 沃東派

世代	各世代 구성 인원	行列의 공동 사용 범위	入義범위 및 無後표시	庶子표시	官階기재	비 고
19	1名					○《後丁巳譜》의 ‘世德考’에는 25代 愼致謹과 26代 愼爾重의 전기가 실려 있 음.
20	2寸 2名	×				
21	4寸 3名	2寸	有		功郎	
22	6寸 4名	6寸			功郎	
23	8寸 7名	×2寸			嘉善	
24	10寸 11名	2寸4寸				
25	12寸 11名	2寸4寸6寸	4寸		贈左尹	
26	14寸 9名	2寸 8寸	6寸		折衝	
27	16寸 3名	× 4寸 16寸		有		
28	3名					
29						

沃東派는 18세기 말인 27代에 이르러 行列의 공동사용 범위가 16寸이 되었고 그리하여 家系の 구성 범위와 일치하게 되었지만, 同一 行列字를 사용하지 않는 例가 적지 않게 나타나며 아울러 일부 家系員들은 《後丁巳譜》를 편찬할 때 單子조차 제출하지 않아서 家系の 결속에 있어서 源派나 得義派에 비하여 미약한 양상을 띄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沃東派 가운데 모두 다섯 인물이 官階를 지니고 있고, 아울러 愼致謹 이외에 또 한명의 家系員이 《後丁巳譜》의 ‘世德考’에 전기가 수록되어 있는 사실은 주의를 요하는 대목이라 믿어진다.

요컨대, 彰忠祠에 祭享된 다섯 鄉吏의 家系 가운데 源派와 得義派, 이 두 家系가 특히 家系の 결속이나 家勢에서 두드러지고 있음을 알 수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의 네 家系는 나머지 아홉 家系에 비하여 그 家勢가 분명히 구분되고 있음을 다음 설명을 통하여 살펴볼 것이다.

#### ㄴ. 彰忠祠의 건립과 직접 관련이 없는 家系

胤希派를 포함하여 다음에 설명할 아홉 家系 중에는, 英宗 13년(1737)에 《丁巳譜》를 간행 할 때는 單子를 제출했으나 그 후 正祖 21년(1797) 《後丁巳譜》를 간행할 때 單子를 제출하지 않아서 관련 기재 내용이 불충분한 家系員이 적지 않다. 이것은 族譜 편찬에 대한 이들의 저조한 관심을 반영하는 것이라 생각되며, 이 사실은 또한 이들 아홉 家系 중에 세 家系가 또 다시 갈라져 두 家派로 되어있는 양상과도 상통하는 내용이라 믿어진다. 먼저 이제, 두 家派로 또 다시 갈라진 家系 가운데 允才派를 첫 검토 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련 내용을 정리하면 바로 [表 9]와 같아 된다.

重顯·重天家派와 ○○家派(《居昌 愼氏 桑林家譜》에는 호칭을 기재한 해당 부분이 마멸되어 있어서 이 家派의 호칭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공란으로 남겨두기로 한다)로 구분된 允才派는 수록된 사항이 불충분할 뿐 아니라 官階를 기재한 인물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다음 편의 [表 9]를 참조) 더우기 이들 각 家派에는 22代 이후 기록이 끊긴 家派員이 적지

[表 9] 允才派

重顯·重天家派					○○家派			
世代	各世 구성법위 와 인원	行列의 공동 사용 범위	入養범위 및 無後표시	비 고	各世 구성법위 와 인원	行列의 공동 사용 범위	비 고	
19	1名			○《後丁巳譜》에 관련 기재 사항 이 불완전함. ○官階를 기재한 경우가 없음. ○22代 이후 더 이상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도 나타남. ○26代 이후 重顯 ·重天家派와 ○○家派로 나 누어짐.	↑	↑	○《後丁巳譜》의 편찬시에 單 子를 제출하 지 않았음. ○官階를 기재 한 경우가 나 타나지 않음. ○22代 愼士秀 는 營吏로서 進士에 합격 하고 그의 아 들인 23代 愼 志는 中樞府 錄事를 역임.	
20	1名							
21	2寸 2名							
22	2寸 3名	2寸						
23	4寸 3名							
24	6寸 5名	8寸	8寸					
25	8寸 6名		4寸					
26	2寸 3名	2寸						
27	4寸 7名	4寸	有					
28	6寸 9名							
29	6名	6寸						

[表 10] 孟東派

自發家派					黑網·進江家派			
世代	各世 구성법위 와 인원	行列의 공동 사용 범위	入養범위 및 無後표시	비 고	各世 구성법위 와 인원	行列의 공동 사용 범위	비 고	
19	單傳			○官階를 기 재한 경우 가 나타나 지 않았음. ○24代 이후 自發家派와 黑網·進江 家派로 구 분됨.	↑	↑	○《後丁巳譜》의 편찬시에 單 子를 더 이상 제출하지 않 았음. ○23代 愼興吉 과 愼興元은 武科에 합격 했음.	
20								
21								
22					(左와 같음)	(左와 같음)		
23	2寸 2名	2寸						
24	2寸 3名	2寸			1名			
25	4寸 5名	× 4寸	有		2寸 2名	2寸		
26	8寸 8名	2寸 4寸	有		4寸 3名	4寸		
27	10寸 11名	2寸 8寸	有		6寸 5名	2寸		
28	12寸 10名	× 2寸 4寸			3名			
29								

않고, 또 《後丁巳譜》를 편찬할 때 單子를 제출하지 않은 예도 나타나고 있어서 이들 家系의 결속 정도를 짐작할 수 있겠다. 뿐만 아니라 6寸에 국한된 行列의 공동 사용 범위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양상은 孟東派에서도 찾아진다. (앞 면의 [表 10]을 참조) 允才派와 마찬가지로 두 家派로 나누어진 孟東派는 이들 각 家派의 行列 공동 사용 범위가 2寸과 4寸에 국한되어 있음을 앞의 표는 제시하고 있다. 더우기 黑綱·進江家派는 《丁巳譜》를 편찬할 때만 單子를 제출하였고, 또한 自發家派와 마찬가지로 官階를 지닌 인물이 없어서 孟東派의 家勢를 짐작할 수 있게 해 준다.

한편, 戊申亂에서 軍功을 세우고도 그 행적을 국가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愼世欽과 愼世彬은 季東派에 속하고 있는데, 이 家系 역시 두 家派로 갈라져 있다.

[表 11] 季 東 派

永 觀 家 派						先 達 家 派			
代各	主世行列의 공동 사용 범위 인원	공법	入養범위 및 無後표시	비 고	各世代의 구성 범위 인원	行列의 공동 사용 범위	入養범위 및 無後표시	비 고	
19	1名			○《後丁巳譜》의 편찬시에 家派의 單子를 제출하지 않았음. ○官階를 기재한 경우가 나타나지 않음. ○21代 愼大安은 壬辰亂에 軍功을 세웠고 25代 愼世欽·愼世彬은 戊申亂에 功을 세웠음. ○25代와 29代에 각각 庶子를 표시하여 나타냄.	(左와 같음)	(左와 같음)		○官階를 기재한 경우가 나타나지 않음. ○21代 愼大英은 壬辰亂에 軍功을 세웠고, 23代 愼化龍은 武科에 合格했음	
20	1名								
21	2寸 2名	2寸							
22	4寸 3名	4寸							
23	6寸 6名	6寸							
24	4寸 7名	× 4寸							
25	6寸 12名	2寸							
26	8寸 17名	× 2寸 4寸							
27	10寸 19名	× 6寸							
28	12寸 22名	2寸 6寸							
29	3名								

즉, 위 표는 壬辰倭亂에 軍功이 현저했던 愼大安이나<sup>29)</sup> 武科에 합격한 愼化龍이<sup>30)</sup> 愼世彬이나 愼世欽과 동일한 家系員이지만, 이들과는 家派에 있어서 구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 가운데 永觀家派는 《後丁巳譜》를 편찬할 때 무려 반 이상의 家派員이 單子를 제출하지 않았다. 더우기 官階를 기재한 인물은 하나도 없으며, 이 점은 先達家派와 일치하고 있다. 이와 함께 行列의 공동 사용 범위도 각 家派가 6寸과 4寸을 벗어나지 못하여 允才派나 孟東派와 비슷한 양상을 보여준다고 간주할 수 있겠다.

한편 두 家派로 구분되지는 않았으나 家勢가 앞의 세 家系와 서로 비슷한 家系가 바로 胤希派·得壽派 그리고 宗國派이다. 이들 세 家系는 家系員의 일부가 《後丁巳譜》를 편찬할 때 單子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공통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관련 내용을 다음 편의 [表 12]와 같이 하나로 묶어 정리해 보았다.

이 중에서 먼저 胤希派는 居昌 愼氏 吏族의 宗孫에 해당하며 家系員 가운데 모두 네 명이 官階를 지니고 있다. 그렇지만 8寸 규모로 확대된 24대에 이르러서도 行列의 공동 사용 범위는 불과 4寸에 국한되어 있었고, 또한 長水나 陝川으로 일부 家系員이 이주하였을 뿐 아니라 이들은 《後丁巳譜》를 편찬할 때 單子를 제출하고 있지 않아서, 이 胤希派의 결속 정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 得壽派는 行列의 공동 사용 범위가 고작 2寸에 머무르고 있어서 胤希派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더우기 각 인물에 대한 기재가 불완전하여 族譜 편찬에 대한 이들의 저조한 관심이 반영되고 있다.

끝으로, 宗國派의 경우 行列의 공동 사용 범위가 6寸까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家系員의 일부는 《後丁巳譜》의 편찬시 單子를 제출하지 않았고, 또한 이에 앞서 《丁巳譜》의 간행을 위하여 제출했던 單子は

29) 《撮曹龜鑑》3 觀感錄·23a 愼大安 傳記

30) 《後丁巳譜》11-12.

〔表 12〕 胤希派·宗國派·得壽派

家系名	世代	各世代 법위와 구성 인원	行列공동 사용법위	無後 표시	官階기재	비고
胤 希 派	19	1名				○家系員 일부는 長水나 陝川으로 이주하여 《後丁巳譜》편찬시에 單子를 제출하지 않았음. ○居昌에 거주하는 家系員 중에도 《後丁巳譜》의 편찬시 單子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있음.
	20	1名				
	21	2寸 5名	×2寸	有	贈軍資監正 贈工議 僉正 老職同樞	
	22	4寸 12名	2寸	有		
	23	6寸 9名	2寸			
	24	8寸 11名	2寸4寸	有		
	25	3名	2寸			
26	3名	2寸				
宗 國 派	19	1名				
	20	1名				
	21	1名				
	22	1名				
	23	2寸 6名	2寸	有		
	24	4寸 3名		有		
	25	6寸 4名		有		
	26	8寸 5名	2寸			
	27	6寸 3名	2寸			
	28	3名				
29	2名					
得 壽 派	19	1名				○家系員 중 일부는 《後丁巳譜》의 편찬시 單子를 제출하지 않았음. ○기재 내용이 불완전함.
	20	1名				
	21	2寸 2名	2寸			
	22	4寸 3名	4寸			
	23	6寸 6名	6寸			
	24	8寸 6名	2寸4寸			
	25	10寸 3名	2寸6寸			
	26	1名				
27	3名					

수록 내용이 불완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더우기, 자손이 끊겼더라도 入養을 하지 않은 사실이 18세기 말에 해당하는 26代까지 계속 나타나고 있어서 이 家系의 열세한 위치를 반영하고 있다.

이상의 여섯 家系와는 달리, 《後丁巳譜》를 편찬할 때 아예 單子조차 제출하지 않았던 家系가 바로 아래 설명할 輔國派·華國派 그리고 濯派로서 이들에 대한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 된다.

〔表 13〕 輔國派·華國派·濯派

세대	輔 國 派				華 國 派			濯 派		
	各世子와	세대법위 인원	行列의 공 사용법위	入 養 등 법 위	비 고	各世子와	세대법위 인원	行列의 공 사용법위	비 고	비 고
19		1名			○ 23代 이후	1名			○ 《丁巳譜》에	○ 家系가 거
20		1名			永同으로	1名			수록된 판	의 끊기고
21		1名			이주함.	1名			련 내용이	後孫이 微
22		1名			○ 《後丁巳譜》	2名	2寸		불완전함.	殘하여 安
23		2名 ×			편찬시 單	1名			○ 《後丁巳譜》	義로 이주
24		2名			子를 제출	1名			편찬시 單	함.
25	2寸	3名	2寸		하지 않았	2名	2寸		子를 제출	○ 《後丁巳譜》
26	4寸	9名	2寸		음.	2名	2寸		하지 않았	를 편찬시
27	6寸	17名	4寸	4寸					음.	單子를 제
28	8寸	14名		6寸						출하지 않
29		4名								았음.

먼저 輔國派는 同一 行列字를 6寸까지 확대·사용하고 있었으나, 23代에 이르러 후손이 永同으로 이주하여 《後丁巳譜》를 간행할 때는 더 이상 單子를 제출하지 않았던 것이다.

한편 華國派의 경우에는 《丁巳譜》에 후손이 불과 11명 밖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後丁巳譜》를 편찬할 때는 單子를 제출하지 않았다. 더우기 《丁巳譜》에 수록된 각 인물에 대한 관련 사항이 지극히 미비하여, 族譜 편찬에 대한 이 家系의 저조한 관심은 물론 零星한 家勢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겠다.

그러나 몰락한 양상은 濯派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예컨대 23代와 24代에 걸쳐 모두 20명의 男系 구성원이 있었지만 그 중 1명만이 후손이 존속했을 뿐 나머지는 모두 자손이 끊겼던 것이다. 더우기 잔존한 이 후손

들도 微殘하여 安義로 이주해 버리고 말았다.<sup>31)</sup> 결국 灑派는 몰락하였던 것이며, 이러한 零星한 상황은 輔國派나 華國派 역시 크게 다를 바가 없었을 것이라 믿어진다.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彰忠祠에 祭享된 다섯 鄉吏의 家系는 다른 아홉 家系와 비교할 때 家勢가 융성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구체적인 특성은 行列의 공동 사용 범위가 통상 8寸 이상으로 확대되어 있고, 《丁巳譜》에서 《後丁巳譜》에 이르는 愼氏一門의 族譜 간행에 있어서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표명하고 있을 뿐 아니라 官階 획득을 위하여 열의를 가졌다는 사실로서 대변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彰忠祠의 건립과 직접 관련이 없는 나머지 아홉 家系는 族譜 편찬과 관련한 單子 제출에 대하여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거나 낮은 호응을 보이고 있고, 또 居昌 외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기도 했다. 그뿐 아니라 家系가 또 다시 나누어져서 두 家派로 형성된 例까지 나타나며 더불어 이들 各 家系의 行列 공동 사용 범위도 6寸 이하에 국한되고 있어 이들 아홉 家系의 미약한 家系 결속과 더불어 이들 각 家系의 零星함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正祖 12년(1788)의 彰忠祠 건립은 愼氏 吏族 내 주도적 家系의 성장과 더불어 이들 상호 간의 결속에 의하여 이루어진 결실을 뜻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 b. 居昌 愼氏 吏族 내 주도적 家系와 그 특성

彰忠祠의 건립에 참여한 네 家系 가운데 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家系는 源派와 得義派였다. 따라서 이 두 家系가 바로 愼氏 吏族 내의 주도적인 家系라 할 수 있을 것이며, 이 家系의 諸特性을 검토함으로써 吏族 내부에서 진행된 變化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 31) 이에 대하여 戶長 愼思齊가 기록한 다음 내용은 灑派의 몰락한 상황을 잘 지적하고 있다.

安義 愼喜得 諱灑字八世孫也 (中略) 後世殘微 至於奔散之境 (《居昌 愼氏 桑林家譜》)

源派나 得義派에 있어서 그들 家系の 結속과 운영의 중심은 各家系에서 상정한 顯祖와 이에 대한 祭祀였다. 예컨대 源派의 경우, 壬辰倭亂의 功臣인 愼弘男을 그들 家系의 顯祖로 상정하고 있었다.<sup>32)</sup>

公의 이름은 克終이며 字는 聖甫이고 本은 居昌이다. 高麗 때 司徒左僕射 恭獻公인 愼修의 후손이며 神虎衛大將軍 愼執平의 18世 후손이고 壬辰倭亂 때 享難功臣인 愼弘男의 증손이 된다.<sup>33)</sup>

즉, 戊申亂의 功臣인 24代 愼克終을 기념하기 위하여 愼思齊를 포함한 그의 후손들이 세운 墓碣에는 壬辰亂의 功臣인 21代 先祖 愼弘男이 그들 家系의 顯祖로서 상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요컨대 源派의 各 家系員들은 愼弘男의 후손이라는 家系意識으로 결합되어 있었고 실제로 源派의 家系구

〔表 14〕 愼思齊의 家系에 설정된 位田

世代	姓名	墓位가  확 인된  인물	位田이  마 련된  인물	비 고
16	勉	○(配失傳)		○18代 孝行 이상의 墓는 濯派에서  관리하여  왔으나  이들 家系가 微殘하여  각지로  분산된  이후 失傳  되다가 1749년 경 源派의  후손의  노력으로  확인됨.
17	仁 義	○(配失傳)		
18	孝 行	○		
19	源	○		
20	子 能	○		
21	弘 男	○	○	
22	應 昌	○	○	
23	以 典	○	○	
24	克 終	○	○	
25	由 誠	○	○	
26	思 齊			○19代 源과 20代 子能의 墓는 源派의 長孫이  관리하여  왔으며  이  역시  자손이 微殘하여 失傳되고  그후 18세기  후반에  확인됨.

32) 《撮曹龜鑑》3 觀感錄·22a 愼弘男 傳記 참조. 한편 宋俊浩는 南原지방의 兩班 家門에 대한 연구 가운데 어느 한 家門의 品等을 評價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누구의 후손이나 하는데 있었다고 흥미로운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宋俊浩, 「南原地方의 兩班家門」, 震檀學會 주최 韓國文化 國際會議 발표요지, 1982.8) 말하자면 兩班 家門에 있어서 이러한 顯祖의 중요성이 吏族 家系에도 그대로 수용되고 있다고 믿어진다.

33) 公諱克終 字聖甫 居昌人 高麗司徒左僕射恭獻公 諱修之後 神虎衛大將軍 諱執平 十八世孫 壬辰享難功臣弘男曾孫 (愼敦恒撰 <愼克終墓碣銘>)

성원은 愼弘男의 후손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表 5]를 참조)

이에 따라, 源派는 그들 家系의 결속을 愼弘男에 대한 共同 祭祀를 통하여 끊임없이 확인하여 왔던 것이며, 이는 位田의 설치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었다.<sup>34)</sup> 즉, 앞의 [表 14]에서 살필 수 있듯이 源派는 그들 선조의 墓位를 16代 祖인 勉 이후부터 모두 확인하고 있었으나, 位田이 설치되어 共同 祭祀의 대상이 된 것은 愼弘男 이후부터였음을 알 수 있다. 덧붙여 이들 家系員의 구성 범위와 行列의 공동 사용 범위가 일치하고 있는 점도 특기해야 할 내용이다. 이것은 得義派의 경우에도 해당되어 各 世代의 모든 家系員이 同一 行列字를 사용하여 그들의 결속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位田의 운영과 共同 祭祀는 이들 家系의 門契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뒷받침되어 왔고, 그 경비는 門契畓을 경영하여 얻어졌던 것으로 생각된다.<sup>35)</sup>

이같은 家系의 결속은 그들 家系員이 愼氏 吏族 내에서 뿐 아니라 居昌의 鄉吏 世界에서 보다 우월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예컨대, 源派의 愼奎範(1859~1907)이 1907년에 居昌 郡守가 되었다거나,<sup>36)</sup> 得義派의 愼龜徵(1716~1762)을 가리켜

그는 기상이 엄격하여 그를 아끼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그리하여 관아에 출입할 때 마다 賤隸가 모두 늘어서서 엎드려 감히 고개를 들고 바라보지 못했던 것이다. (中略) 또한 명분을 바로 잡고 기강을 펼쳤다. 한편 그는 作廳과 府司를 수선했는데 그 규모가 매우 커서 사람들이 모두 기리고 우러러 왔다.<sup>37)</sup>

34) 《居昌 愼氏 桑林家譜》에는 位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실려있다.

35) 《居昌 愼氏 桑林家譜》에는 墓位와 더불어 이들 源派의 門中에 관련된 土地의 내역을 다음과 같이 적어 놓았다.

書齋堡	川外 泰字	83 田	3 卜
墓直堡		87 田	1 卜
墓下木花田		86 田	3 卜 2 束
兀 田	恭字	19 田	4 卜
門契畓	火字	75 畓	4 卜 6 束
		86 畓	9 卜

이상과 같은 내역 가운데 門契畓은 바로 그 경비의 염출을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믿어진다.

36) 《丁丑譜》6-48

라고 기술한 대목은 그가 居昌의 吏族 가운데 비중이 큰 인물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으려니와, 같은 得義派의 愼近晟(1841~1920)은 東學 革命運動이 일어났을 때 이를 진압하는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을 정도로 鄉吏 世界는 물론 居昌 지역의 중심인물이 되어 있었다.<sup>37)</sup>

이같은 家系의 결속은 후손들에 대한 勉學을 장려함으로써 더욱 촉진되었으며 이들 각 家系는 그들의 융성한 家勢를 이를 통하여 유지하고 또한 확대하려 하였다. 源派가 그들 家系의 書齋를 설치하고 이를 위하여 書齋丞을 마련했던 사실이나<sup>38)</sup> 得義派의 愼休徵(1725~1787)이 山中에 書室을 지어 자녀 교육에 힘쓴 대목,<sup>40)</sup> 더 나아가 자손들의 교육을 위하여 퉁으로부터 산골짜기로 이주하여 書室을 짓고 科擧 준비를 시킨 愼有成(1839~1876)의 사례는<sup>41)</sup> 바로 이를 대변하고 있다 하겠다.

그 결과 18세기 중엽 이후 愼氏 吏族 내에서 儒業에 종사하는 인물들이 증가하였으며 이들 대부분은 源派나 得義派의 자손이었던 것이다. 즉, 源派의 愼伯文(1809~1891)이 京洛의 士林과 交遊가 있고 또한 詞賦를 잘 짓고 筆名이 있어서 卿相大夫들이 意氣를 나눌 것을 허락한 사실이라든가<sup>42)</sup> 戶長 愼思齊의 두 아들인 愼尙奎나 愼尙眞이 進士가 되고,<sup>43)</sup> 또한 愼尙奎의 從孫인 愼興文이 學行이 있었다는 기록들이<sup>44)</sup> 바로 위의 경향을 입증하고 있다 할 것이다.

이같은 鄉孫儒業者의 배출은 行列의 공동 사용 범위가 가장 넓은 得義派에서 보다 두드러진다. 이미 18세기 중엽에 愼克恒(1740~1772)은 學行

37) 氣像嚴格 人莫不愛而畏之 每出入 賤隸皆羅伏 不敢仰視 (中略) 正名分 振綱紀 繕修據舍及府司 規模宏暢 人皆聲瞻 《後丁巳譜》後錄 桑林公派 66 愼總徵 傳記)

38) 《居昌 愼氏 世譜》2 下—161 李竣燮撰 愼近晟 行錄

39) 註 35)를 참조.

40) 《後丁巳譜》後錄 桑林公派 67 愼休徵 傳記

41) 《居昌 愼氏 世譜》4 上—173 鄭載星撰 愼有成墓碣銘

42) 위의 책 4 上—187 愼伯文 行錄

43) 《丁丑譜》6—7

44) 《居昌 愼氏 世譜》4 上—137 愼宗立撰 愼興文 行錄

이 현저한 인물로서 알려졌고,<sup>45)</sup> 그에 이어 從弟 愼敦恒(1743~?)은 安義의 儒學者 黃臯 愼守彝와 交遊를 갖는 한편, 科擧에 아홉 차례나 응시한 후, 科擧를 포기하고 儒業에 종사하여 세 차례나 鄉薦에 올랐던 것이다.<sup>46)</sup> 愼敦恒의 아들인 愼千能(1764~1823) 역시 이같은 부류에 속하는 인물로서 그도 일곱 차례나 科擧에 응했던 鄉孫儒業者였으며<sup>47)</sup> 같은 家系의 愼奎福(1805~1868)도 그의 文學의 독실함이 비단 居昌 뿐 아니라 漢陽의 宰相들에게까지 알려진 인물이었다.<sup>48)</sup>

이에 덧붙여 彰忠祠의 건립과 다섯 鄉吏에 대한 국가로부터의 追贈, 나아가 《丁巳譜》에서 別譜로 분리·편입되었던 鄉吏派를 《後丁巳譜》의 士族 諸派와 더불어 合譜로 정리하게 하고, 《丁巳譜》에서 士族에게만 설정되었던 ‘世德考’를 그들 鄉吏派에게까지 설정하게 한 일련의 변화도 바로 愼敦恒을 포함한 鄉孫儒業者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명기해야 할 것이다.

결국, 愼氏 吏族 내의 주도적인 두 家系에서 鄉孫儒業者들을 독점적으로 배출한 사례는 그들의 家勢가 바탕이 되었던 것이며 이는 조선후기의 새로운 경향으로서 전개되어, 일면 그들의 출신 家系를 보다 확고한 위치로 부상시켰으며, 나아가 吏族 내 家系 分化를 더욱 촉진시키는 결과까지 수반하게 되었다고 믿어진다. 요컨대 조선후기 鄉吏 知識層의 성장<sup>49)</sup>은 吏族 내 家系 分化에 상응하는 새로운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45) 《後丁巳譜》後錄 桑林公派 68 愼克恒 傳記

46) 愼敦恒은 愼氏 吏族 가운데 널리 알려진 儒學者로서, 또한 중심 인물로서 인정되고 있었다. 그의 傳記는 《緣曹龜鑑續編》1 觀感錄·58b와 《居昌 愼氏世譜》4上-121 그리고 愼英範의 《菊圃遺稿》중 〈書長齋遺稿後〉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愼敦恒이 名儒인 黃臯 愼守彝와 性理學에 대하여 논의한 내용 일부가 전하고 있다. 《黃臯集》3 〈答愼敦恒書〉 참조)

47) 《居昌 愼氏世譜》4上-137 愼千能 行錄

48) 위의 책 4上-161 愼奎福 行錄

49) 조선후기 鄉吏 知識層의 성장과 이에 따른 변화에 관하여 이미 필자는 《緣曹龜鑑》의 편찬과 간행을 검토하는 가운데 이를 논의한 바 있다(필자 앞의 글).

## 4. 居昌 愼氏 吏族 내 家系 分化의 사회적 배경과 그 의의

조선후기에 있어서 각 지방 吏額의 加濫과 이에 따른 폐해는 朝廷의 정책자들을 괴롭힌 큰 문제의 하나로서 끊임없이 거론되어 왔다. 원래 국가에서는 일정 吏額을 정해주고 그 범위 내에서 差任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었다.<sup>50)</sup> 그러나, 吏額은 끊임없이 증가했고 이에 따른 폐해도 더불어 증가하여 왔다. 이 점, 居昌도 예외는 아니었으며 다음의 표는 이를 잘 말하여 준다.

〔表 15〕 居昌郡의 吏額의 變化

	吏 額
經 國 大 典	22人
嶺 林 邑 誌 (英祖 36년 : 1760)	68人
慶 尙 道 邑 誌 (純祖 32년 : 1832)	90人

즉, 英祖 36년(1760)에 68인에 지나지 않던 人吏의 수가 純祖 32년(1832)에는 90인으로 증가했던 것이다. 물론 이러한 양상은 居昌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국 각 지역의 공통적인 현상으로서 확인되고 있다.<sup>50)</sup>

50) 조선초기에 있어서 鄉役은 큰 부담으로서 鄉吏 가운데 도망가는 자들이 속출하였지만 조선후기에는 일정 이익을 보장하는 吏任으로 변질되었다. 따라서 이를 말으려는 鄉吏들이 많아서 이에 국가에서는 일정한 수를 정하고 그 가운데 수령이 필요한 吏任을 差定하는 관례를 만들었던 것이다.

51) 조선후기 吏額의 變化에 대하여 金弼東氏는 기록이 확실한 전국 44개 邑을 선정하여 이를 정리해 놓았으며 정리한 내용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金弼東 앞의 글 p.198)

44개 邑 人吏 수의 변화

	人吏의 수
輿地圖書 (英祖 36년 : 1760)	1864
慶尙道邑誌 (純祖 33년 : 1833)	2566

이에 대하여 국가에서는 그 대책에 부심하였으며 아래의 狀啓는 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

外邑의 吏胥에는 본래 정해진 수가 있으며 이는 대개 州府郡縣의 대소간극을 재량하여 분배한 것입니다. 당초의 법은 그것의 자세함을 다했는데 근래에 오면서 무단히 증가시켜 심지어는 과거에 비하여 倍가 되는 곳도 있습니다. 이는 바로 안면에 배이고 청탁의 굴림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자기 마음대로 해서 나라를 줌 먹고 백성을 병들게 하는 것이 모두 여기에서 생겼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으니 어찌 크게 개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釐과 鬻을 다스리는 자는 백성을 위하여 폐해를 제거하려하지 않아, 끝내 한 명의 吏胥를 줄이는 것이 한가지 폐해를 제거하는 것임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난날 여러 차례 조치를 내렸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여 前任 수령이 벌주어 쫓았던 吏胥를 後任 수령이 복직시키고, 監營에서 조사하여 줄인 것을 邑에서는 이를 증가시키는 간활함이 될 날이 없어 그 폐해는 매우 심한 근심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大小 백성이 의지할 때가 만무한 것은 곧 吏胥가 많은 까닭인 것입니다.

만약 옛 법을 펴서 밝히려 한다면 자별히 힘써 法規를 정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각 도의 監司에게 영을 내려 省內的 吏案을 모두 모으게 해서, 監司가 손수 남기고 없앴 인원을 주관하게 하고 옛날과 오늘의 실정을 참작하여 바꿀 수 없는 原額을 정하여서 여러 고을에 반포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를 成冊으로 만들어 備邊司에 보고케 하여 그것을 영구히 준행할 것으로 삼도록 해야 합니다.<sup>52)</sup>

다시 말해서 吏胥들이 定額이 무시된 채 수가 증가함으로써 폐해가 빚어졌던 것이며 이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吏案을 수합하여 이들을 정리 原額을 정하려는 정책자들의苦心이 엿보이고 있다.

즉, 앞의 표는 居昌에서 나타난 吏額의 變化가 전국 공통의 현상으로서 그 증가 비율도 대체로 일치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 52) 所啓 外邑吏胥 本有定額 盖州府郡縣 大小間劇之裁量分排 當初法意 極其詳密 挽近以來 無端增加 甚至有比昔我倍處 此不過徇於額私 牽於干囑而漫不省露公病民之俱由於是 寧不大可慨嘆乎 (中略) 今之爲營邑者 未嘗不欲爲民除害 而終未究除一害 無過於除一吏 故已往 屢有朝節 而蔑無其効 前官之罪汰者 後官復之上營之查滅者 下邑增之 奸猾無屏息之日 痼癘有滋基之患 即今大小民人 萬無一支之勢 即吏多之故也 若欲申明舊法 則含有另行定規 令各該道臣 都察省內 吏案 親執存按 酌古參今 作爲不易之原額 頒之列邑 仍即修成冊報本司 以爲永久遵行之地 《備邊司謄錄》 126 憲宗 4년 4월 20일)

결국 이 문제는 壬戌民亂을 야기시킨 중요한 폐해의 하나로서 비화하였고, 이를 계기로 국가에서도 吏額에 대하여 강력하게 규제하려 하였다.<sup>53)</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吏額은 계속 증가하여 조선왕조의 말기까지 커다란 사회문제의 하나로서 부각되어 왔다.

이러한 吏額의 증가로부터 파생된 또 다른 문제는 吏任을 둘러싼 鄉吏들 간의 경쟁을 가열화시켰다는 점에 있다. 즉, 제한된 吏任을 두고 이를 맡으려는 鄉吏들이 증가한 결과 이들 간의 경쟁은 필연적일 수 밖에 없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鄉吏들도 그들 자신의 질서를 재편하고, 스스로 이를 규제하려는 노력도 행하였다.

오늘날 鄉吏로서 入仕한 자들이 관아에 벼슬을 얻으려고 치열히 경쟁하는 것이 과거를 치루어 벼슬을 얻으려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작은 縣의 鄉吏라도 때로는 백 명에 가까워 서로 용납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그들 스스로 법을 마련하여 父子가 함께 入仕한다거나 兄弟 3명이 함께 入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sup>54)</sup>

이러한 鄭若鏞의 지적대로 父子가 함께 入仕하거나 兄弟 3인이 동시에 入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사례도 바로 그같은 自求策 일환이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종식될 수 없었고 오히려 다소 권력이 있는 집안이 吏任을 독점하는 경향이 짙어졌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尙州의 상황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곳 尙州의 鄉吏의 定額은 거의 180人을 넘는다. 그러나, 그들이 맡을 수 있는 자리를 생각하여 보면 50여 곳에 불과할 뿐이다. 가령 개개인에게 3년을 임기로 직책을 맡긴다고 하여도 오히려 자리가 모자라는 것을 걱정해야 하는데 이렇게 나아갈에 순서가 없으니 어떻게 하겠는가. 그 가운데 약간 권력이 있는 자는 부자형제가 때로는 함께 벼슬을 하게 되고, 만약 의지할 수 있고 도와줄 수

53) 《備邊司謄錄》249 哲宗 13년 3월 25일 참조.

54) 今也鄉吏入仕者 爭門碎頭如科宦 小縣之吏或近百人 不可相容 於是自設法或父子不許同仕 或兄弟不許三人 《牧民心書》4 吏典 6條 東吏)

있는 사람이 없으면 그가 吏案에 들어간 지 10년이 넘는다고 하더라도 한자리를 조차 차지할 수 없어 가난함을 걱정하고 자신을 보존할 수 없게 된다.<sup>55)</sup>

즉, 《尙州事例》에서 살필 수 있는 바와 같이 권력이 있는 집안은 吏任을 독점하고 있는 반면, 배경이 없는 인물은 그가 吏案에 오른지 10여년이 넘더라도 한자리 조차 말지 못하여 빈곤하고 몰락하게 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居昌의 경우에도 그대로 반영되었으리라 믿어진다. 즉, 章氏·劉氏·愼氏 등 여러 吏族이 공존하여 그들 간에 吏任의 분배를 비롯한 세력의 형평이 이루어지고 있는 한,<sup>56)</sup> 이를 둘러싼 경쟁은 各 吏族 내 家系들 사이에 전개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各 吏族 내에 이를 주도하여 가는 家系가 형성되고 이들은 상호 간의 결속에 의하여 그들의 독점적인 위치를 보다 확고하게 구축하려 했던 것이다. 愼克終을 포함한 다섯 鄉吏가 이들 출신 家系의 결속과 노력에 의하여 彰忠祠에 追享되고, 나아가 국가로부터 追贈되었으며 마침내 《後丁巳譜》에서 士族들과 同格의 호칭을 사용하게 된<sup>57)</sup> 일련의 변

55) 吏額 則殆過一百八十人 而顯其任窠 則不過乎五十餘個也 設使每一人比三年肩差猶患窠窄 而奈此進取無序就 其中稍有權力者 則父子兄弟 或至兼拜 苟無倚庇者 則入窠已過十年餘滯 未獲一窠 舉患貧凋不能自保 《尙州事例》，國立中央圖書館 청구번호 古 31-536)

56) 일정 지역 吏族들 간의 관계에 대하여는 후고를 통하여 밝힐 예정이다. 다만 居昌의 吏族들은 조선말기까지 세력의 우열이 다소 있을지언정 큰 변함없이 공존하여 왔다는 사실만을 본고에서는 추기하고자 한다.

57) 鄉吏들은 同宗士族이 중심이 되어 간행한 族譜에서 조차 신분적 차등을 받아왔다. 예컨대, 居昌 愼氏의 경우 《壬戌譜》(1682)를 간행할 때 單子까지 제출한 鄉吏派를 수록조차 하지 않았고, 그 후 《丁巳譜》에서는 이들을 수록하되 別譜에 분리·편입시키는 방식을 취하였다. 鄉吏派가 同宗士族 諸派와 더불어 合譜로 정리된 것은 《後丁巳譜》(1797)의 간행에 이르러서였다.

그렇지만, 鄉吏派에게는 配偶者나 配偶者의 父를 기재함에 있어서 士族들과는 구분되는 호칭을 썼으며, 이같은 차별은 오히려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丁巳譜》에서 다른 鄉吏들과 마찬가지로 신분차등을 받고 있었던 다섯 鄉吏가 《後丁巳譜》에 이르러 士族들과 同格의 호칭으로 기재하게 된 것은 특기할 대목이다. 그 구체적인 실례로서, 《後丁巳譜》에 쓰인

화는 바로 이같은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家勢가 零星한 家系員들은 아예 吏案에서조차 제외되어 갔다. 吏案에서 제외된 安東의 權克祥 등 40여 명의 鄉吏들이 자신들의 구제를 호소하면서

우리들은 여러 차례 鄉役に 應하였는데 하루 아침에 吏案에서 제외되었다. 이는 우리들 한 몸만 폐기된 것이 아니라 자손의 앞길까지 영원히 막은 것이다.<sup>58)</sup>

라 하여 그들 자신과 자손의 앞날을 우려하는 모습은 같은 吏族 내에서 몰락의 길을 걷고 있는 家系の 일 단면을 보여주며, 愼氏 吏族 내에서 적지 않은 家系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여 간 사실도 바로 이같은 家系分化의 산물이었던 것이다.

## 5. 맺 음 말

이상에서 彰忠祠의 건립을 통하여 居昌 愼氏 吏族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조선후기 吏族의 家系 分化和 이로부터 야기된 諸變化 및 의의를 이해할 수 있었다. 이제, 그 대강을 요약하여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조선후기에 들어 각 지역 鄉吏들에 의하여 祠宇가 건립되기 시작했고, 正祖 2년(1778)에 居昌에 건립된 彰忠祠도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

妻의 기재방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後丁巳譜》에 나타난 妻의 기재 용례

	士族의 諸派		鄉 吏 派		
	嫡 派	庶 派	彰忠祠追享五功臣	外 人物	庶 派
호 칭	配혹은室	娶	配	娶	妻
本貫과 姓 다음 氏의 기재 유무	有	無	有	無	無

58) 權克祥等四十餘人 ‘以其矣等多年應役一朝見落 非但一身廢棄 永塞子孫前程’ 是如 《陸村吏案》節目, 일사문고 古 920.051)

는 것이었다. 彰忠祠는 居昌 愼氏 吏族 내 일부 家系들이 중심이 되어 건립했으며, 이는 各 家系가 그들 선조를 현양하기 위하여 전개한 일련의 노력 가운데 하나였다.

둘째, 彰忠祠의 건립에 참여한 家系들은 愼氏 吏族 내의 다른 家系들에 비하여 강한 결속과 家勢의 성장을 보여 주고 있으며, 彰忠祠는 바로 이들 상호 간의 결속을 의미하는 기념물이었다. 이와 더불어 愼氏 吏族 가운데 몰락하는 家系도 적지 않게 나타났으며, 이는 조선후기 吏族의 家系 分化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셋째, 愼氏 吏族 내 주도적 家系의 형성과 더불어 이를 배경으로 鄉孫 儒業者들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鄉吏 知識層의 성장은 그들의 출신 家系를 보다 확고한 위치로 부상시켰고 이는 吏族 내 家系 分化를 더욱 촉진시키는 결과를 수반하게 되었다.

네째, 이같은 家系 分化는 조선후기 吏額의 증가와 더불어 파급된 양상이었다. 吏任은 큰 변화없이 고정되었으나 이를 맡으려는 鄉吏들은 그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吏任을 둘러싼 경쟁이 가열화되었고 그 결과 이를 독점하는 주도적 家系의 형성을 보게 된 것이다.

## 〈英文要約〉

The Establishment of Changchoong-shrine(彰忠祠)  
and Geochang Shin Local Functionary's Lineage  
(居昌 慎氏 吏族)

Lee, Hoon-sang

This study attempts, through the history of Changchoong Shrine (彰忠祠) in Geochang(居昌), to review the division of Geochang Shin Local Functionary's lineage(居昌 慎氏 吏族). This review will help to understand the lineage division of the local functionaries(鄉吏) in the Late Yi Dynasty and its change.

In the late Yi Dynasty, most of Yangbans' lineages established their own shrines. These shrines played the very important roles not only of reflecting the honour of each lineage but giving practical benefit to its members. Yangbans' shrines influenced finally the middle class, local functionaries. They began to build the shrines of their own to commemorate their renowned ancestors and above all to display their good lineages.

One of these shrines is Changchoong Shrine established in Geochang. This shrine was built by the four leading minor lineages(家系) out of Geochang Shin lineage. The shrine reveals the zeal of Geochang Shin's people who tried to display their honorary lineage. At the same time, the shrine symbolizes the close bond and growth of these four minor lineages. On the contrary, the other minor lineages of Geochang Shin's went to ruin. This downfall reflects the division of local functionary's lineage in the late Yi Dynasty.

The formation of the four leading minor lineages of Geochang Shin's increased the number of Confucian literati within their own lineages.

The growth of these intellectual élite elevated the position of their lineage and consequently accelerated the lineage division.

The lineage division resulted from the increasing local functionaries in the late Yi Dynasty. While the number of employment was limited, local functionaries were on the high increase. It was natural that job hunting became highly competitive and, as a consequence, were formed the leading minor lineages, who tried to monopolize the local functionaries' positions.